

# ‘맛뜰무안몰’ 5개월만에 회원 1만명 돌파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전략 시기별 이벤트·쌀 소비촉진 등 지역농가·소비자 직거래 역할 내달 8일까지 쌀 등 25% 할인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의 가입자 수가 오픈 5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무안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전략으로 이룬 성과로, 지역 농특산물 판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군은 앞으로도 쌀·잡곡 25% 할인 기획전 등을 진행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인 맛뜰무안몰은 지난 4월 오픈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호응을 받으며 가입자 수 1만명을 넘어섰다.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 가입자수가 5개월만에 1만명을 기록했다. 무안군 제공

이는 군이 당초 예상한 시기보다 7개월 앞당겨진 성과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후발주자로 오픈된 맛뜰무안몰의 이같은 성과는 무안군의 꾸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엄선된 농특산물 판매전략 때문

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지역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축제, 여름, 추석 등 시기별 이벤트와 쌀 소비촉진 등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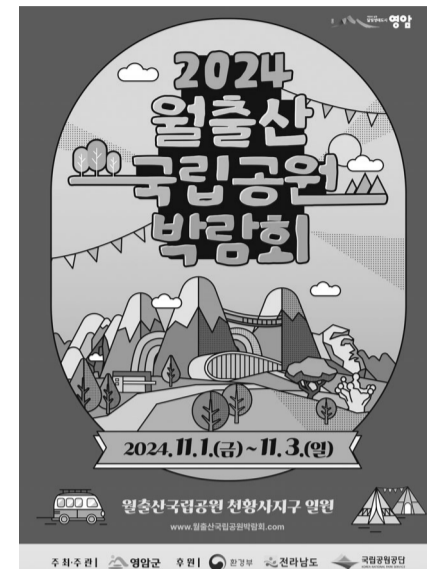
기획전은 매년 큰 인기를 끌었다.

군은 가입자 수 1만명 돌파 기념으로 축하 댓글 선물 증정 이벤트와 일부 품목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30일까지 무안 대표 농산물 양파·마늘 제품 구매 시 3000원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10월8일까지 쌀 소비촉진을 한 쌀·잡곡 25% 할인 기획전도 추진된다.

김산 군수는 “가입자 수 1만 명을 돌파한 만큼 그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지원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맛뜰무안몰이 지역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개최 11월1~3일 천황사지구에서

영암군이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사지구에서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한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월출산, 달빛 넘나들이’가 주제인 이번 박람회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월출산국립공원 자연·생태·문화 가치 전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취지로 마련됐다.

박람회는 △공원문화 △기획 △전시 △체험 △부대 △판매 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공원문화행사는 1일 ‘월출선언’과 개막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개막행사로 문을 연다. 이어 ‘에코 음악회’에서는 김창완 밴드, 이젤, 뮤턴트 보이즈 등이 출연해 관객들을 맞는다.

전시행사로 국립공원 홍보·체험관, 주제존·테마존, 사진전이 열린다.

주제존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깃대종과 주요 관광지가 소개되고 테마존에서는 깃대종 상징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체험행사로 열리는 ‘월출산 파크 레인저’는 초등학교생이 박람회장 일대를 누비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장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 월출산 달빛 뮤직 페스티벌 영암군, 참가자 모집

영암군이 오는 11월2일 열리는 ‘2024 영암 월출산 달빛 뮤직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상금 1530만원이 걸린 이 페스티벌은 같은 달 1~3일 천황사지구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부대행사의 하나로 진행된다.

2개 부로 나눠 진행되는 페스티벌 청소년부에는 2006~2011년생 전남도민, 광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일반부에는 2005년생 이상 전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예선 심사 후 이어지는 본선에는 청소년부와 일반부 각 10팀씩 진출하게 된다. 참가 음악 장르는 발라드, 트로트, 힙합 등 제한이 없고, 댄스로도 참여할 수 있다. 페스티벌 막간에는 린, 임한별, 디에이드, 범진 등 뮤지션의 축하무대가 예정돼 있다.

달빛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4 영암 월출산 달빛 뮤직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공고’에서 볼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 해남군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급 1만1140원... 전년비 2%↑

해남군은 지난 23일 노동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40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남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만826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2025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은 올해 1만930원보다 2%(21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11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 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해남군은 지난 2021년 도내 군단위 최초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신안군, 어린이·임산부·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신안군은 지난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접종은 어린이(6개월~13세), 임산부, 어르신 등 대상자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접종 대상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관내 40개 보건기관 및 12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자체사업 무료 대상은 10월21일부터, 그 외 접종 희망자(14~64세)는 10월28일부터 관내 40개 보건기관(보건소 1, 보건지소 16, 보건진료소 23)에서 유료(접종 비용 1만1000원)로 접종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신안군 누리집,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61-240-8816)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은 지난 20일 지역 특산품인 빨낙지를 활용한 1만원대 메뉴 개발 품평회를 열고 시식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빨낙지 활용 1만원대 메뉴 개발 품평회

무안군이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지역 대표 특산품인 ‘무안빨낙지’를 활용한 1만 원대 메뉴 개발 품평회를 열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품평회는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된 무안빨낙지거리의 영업주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전문컨설팅업체인 ㈜이시스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한 빨낙지요리들의 시식과 평가를 진행했다.

개발한 메뉴는 빨낙지 떡갈비, 빨낙지 삼겹살볶음, 빨낙지 육개장, 빨낙지 비빔냉면, 빨낙지 수제비, 빨낙지 짬뽕 등 6종의 음식이며 그중에서 쫄깃한 낙지와 고소한 삼겹살이 어우러진 ‘빨낙지삼겹살볶음’과 얼큰한 국물과 함께 낙지의 식감이 잘 살아나는 ‘빨낙지수제비’가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무안군은 이번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요리들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무안갯벌낙지축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레시피 공유와 참여 음식점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낙지요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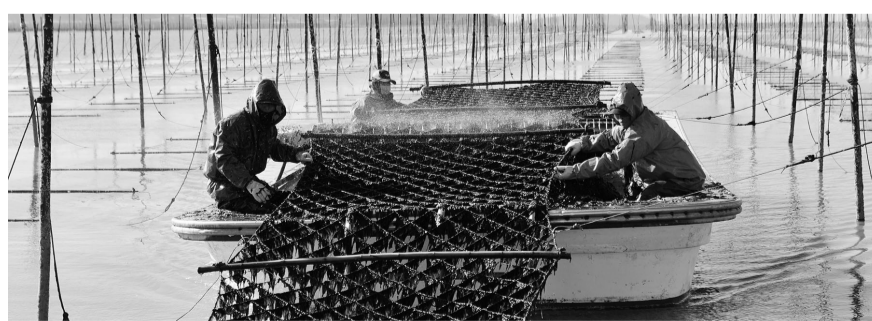
정현구 무안 부군수는 “무안의 대표 특산물인 낙지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무안의 빨낙지맛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 무안돌김, 지리적표시 등록... 우수한 품질과 역사성 인정

무안군은 ‘무안돌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를 거쳐 지리적표시 제28호로 공식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지역의 우수한 품질과 역사성이 깊은 특산물에 대해서 상표권을 부여하여 보호·육성·발전시켜 산업화에 이용하는 제도로 무안군 김양식 어업인은 ‘무안돌김’이라는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얻고 등록 명칭을 보호받게 된다.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무안돌김’은 마른 김과 구운 김 모두를 대상으로 생산방식은 지주식, 품종은 잇바디돌김으로 한정하여 품질기준을 한층 더 높였다.



무안군 어민들이 지주식 돌김을 채취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잇바디돌김은 일명 ‘곰장김’이라 불리는 무안군의 대표 김 생산 품종으로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청정해역에서 지주식으로 생산되어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무안 김은 (사)한국김산업연합회에서 주최한 전남 으뜸 김 품평회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수상(최우수상 2회·우수상 1회)하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바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